



겨울을 난 인삼밭을 관리해야 하는 시기입니다. 인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지역 기상정보를 면밀히 살피면서 관리하고 작업을 해야 합니다.

특히 차광막 설치와 배수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. 봄철에 발생할 수 있는 저온 피해, 습해, 병해 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. 농촌진흥청은 최근 갑작스런 추위와 이상 고온이 동시에 발생하고, 잦은 눈비로 인해 봄철 인삼에서 일찍 싹이 트는 현상과 생육 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며 예방법을 제시했습니다.

|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과 이정우 043-871-5612

차광막 설치하고 배수로 정비와 고랑 흙 덮어 적정 온도와 수분 유지
묘삼은 싹이 나기 전 3~4월 본 밭에 최대한 빨리 옮겨 심어야

관리요령 1 겨울나기 한 인삼밭 관리



▶ 햇빛이 두둑 위쪽에 내리쬐면 땅 온도가 올라가 인삼 싹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. 이때 기온이 갑자기 내려가거나 늦은 서리가 오면 올라온 싹이 저온 피해를 보게 됩니다. 따라서 해가림 차광막을 내려 저온 피해와 인삼 머리(뇌두)가 어는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



- ▶ 인삼 뿌리가 얇게 묻혀 인삼이 보이는 곳과 서릿발로 인삼 뿌리가 흙 위로 솟은 경우에는 고랑 흙으로 인삼 머리와 뿌리를 덮어 온도와 수분을 유지해 주어야 합니다.



고랑 흙 덮기



보온 피복물 덮기

- ▶ 물 빠짐이 좋지 않아 물이 고이는 지역은 뿌리가 부패하는 습해나 이차적 병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두둑과 고랑 배수(물 빠짐)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.

관리요령 2

묘삼밭 관리



모종 삼 옮겨 심기



모종 삼 흙덮기

- ▶ 모종 삼(묘삼)은 3월 중순~4월 상순 사이 나기 전 본밭에 최대한 빨리 옮겨 심어야 좋습니다.
- ▶ 모종 삼은 바로 옮겨 심는 것이 가장 좋지만, 기상 상황으로 바로 심지 못할 때는 썩거나 싹이 트지 않도록 -2~0°C 에서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.
- ▶ 모종 삼은 길이가 15cm 이상이고, 한 개체당 무게가 0.8~1g이며, 뿌리에 병이 없고 붉은 반점과 상처가 없는 것이 좋습니다. 본 밭에 옮겨 심은 뒤에는 흙을 3~5cm 정도 덮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.

- ▶ 그 다음 해가림 시설을 설치하고 4월 중 · 하순경 인삼 싹이 50% 정도 올라오기 전까지 부직포 등 피복물을 덮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. 다만, 늦서리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싹이 트기 전까지 피복물을 덮어 주어야 합니다.